

# 깨진 치아도 다시보자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건강한 치아는 오복(五福) 중 하나라는 말 처럼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평소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따라 치아수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의 건강한 치아를 80대까지 오래 사용하기 위해선 치과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하게 대부분 치아에 이상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한 치아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치아에 금이 가거나 깨진(파절) 경우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장기간 방치할 경우 염증이나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최악의 경우 잇몸 뼈가 녹아내려 인공치아를 심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다.

파절된 치아는 파손 정도와 위치, 신경 및 뿌리 손상유무 등에 따라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며, 앞니의 경우 신경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레진이나 라미네이트만으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앞니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미네이트는 인조손톱과 같은 세라믹을 치아 표면에 붙여주는 치과보철의 한 과정으로 치아의 삭제량이 적고, 자연치아와 가장 흡사해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이다. 시술기간은 치아를 다듬고 본을 떠 붙이기까지의 과정이 있어 2~3 정도 방문하면 되며, 삭제한 면은 불소도포와 연마를 통해 충치 발생 우려도 줄여준다.

다만 신경이 노출되었거나 어금니가 파절된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보다는 크라운과 같은 단단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금니는 치아 중에서도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며, 크라운을 씌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치아뿌리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물론 깨질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충치가 심하면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치아의 신경을 최대한 보존해주는 신 물질(MTA)이 개발되어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좋은 치료 예후도 다수 보고되고 있으니 의사의 판단 하에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된다.

이밖에도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선 음식 섭취 후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치간 칫솔 및 치실 사용을 병행하여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기관 선택 역시 매우 중요한데,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과잉진료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병원의 유명세나 저렴한 치료비용에 현혹되기 보다는 ▲상하가 자주 바뀌는 곳은 아닌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인지 ▲상담의와 수술집도의가 동일인지 ▲해당 시술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의사인지 ▲치료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줄 수 있는 병원인지 ▲상담실장이나 병원 코디네이터가 시술부위 및 치료비용을 결정하는 곳은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치과전문 의 민솔신치과 원장



예탁원, 몽골 예탁결제회사와 MOC 체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예탁결제회사(MCSD)와 국경 간 증권 발행 및 투자 지원서비스 개발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이사가그와 몽골예탁결제회사 사장(왼쪽 첫번째), 정재남 몽골 주재 한국대사(세번째) 등과 지난 1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예탁결제회사와 MOU를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학습멘토링 '영어학습지원' 캠프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4박5일간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5~6학년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학습멘토링 '영어학습지원' 캠프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에게 체험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KB국민은행

# 정통부-방통위, 줄다리기 언제까지?



기자 수집  
김나인 (산업부)

“국가고 기업이고 성장 정체에 빠졌는데 미디어, 콘텐츠 등 그나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에서 힘겨루기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답답합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콘텐츠 업계 관계자가 토로한 고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엇박자'가 급변하는 방송·통신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인은 융합이 대세인 방송과 통신 환경과 달리 정책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견제가 우선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 정권 때 정책이

이원화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당시에 변화에 대처하기 힘들고 통합적인 정책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산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소극적인 조직개편으로 '이름 바꾸기'에만 개편이 그쳤다.

최근에는 두 부처의 엇박자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도 했다. 지난달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기준 점수 이상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에 대한 사전 동의를 거부하는 조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사전 동의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방통위가 SO 재허가 동의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출범 1년을 맞은 4기 방통위는 1년 간의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과기정통부와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정부 조직이 이원화돼 이중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

적이다. 실제 방통위가 지상파와 종합편성방송(중편)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규제는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다.

새로 등장해 미디어 시장을 위협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특성이 기존 미디어와 다르지만, 기존 칸막이 규제로는 대응할 길이 막막하다. 페이스북의 망사용료를 둘러싼 인터넷 기업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기능중복으로 책임소재가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원회' 설립이 떠오르고 있다.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합의제 기구로, 미디어의 규제와 진흥을 한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골자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어떤 대안이든 현재 이원화된 정책 구조를 타파할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게 업계 공통 의견이다. 당분간은 중간에 끼어 있는 방송·통신 사업자들만 답답한 노릇이다. /silkn@metroseoul.co.kr

## 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처실장급 전보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 전략실장 오형완 △기획조정실장 기노선 △경영지원처장 안병희 △재무관리처장 최주환 △정보전략실장 임재형 △비축사업처장 강계원 △수출전략처장 이필형 △수출사업처장 박민철 △식품산업처장 정성남 △유통조성처장 백대근 △사이버거래소장 윤

영배 △화훼사업센터장 이문주 △감사실장 신현근 △서울경기지역본부장 김정옥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형목 △아세안지역본부장 겸 하노이지사장 김창국 △부장급 전보 △사회기차출발부장 박근식 △인사부장 성시찬 △기금관리부장 민경후 △비축관리부장 박재형 △품질안전부장 금동우 △미곡부장 및 가공유통제도개선TF팀장 김기봉 △식량지원부장 및 해외원조상황실반장 장재형 △수출기획부장 심화섭 △시장다변화부장 노태학 △수출농가지원부장 이원기 △농산수출부장 이성복 △식품수출부장 황도연 △수산인산수출부장 김석주 △마케팅지원부장 정연수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장 구자성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부장 양재준 △산시시설부장 김동욱 △농식품유통교육원 교육지원부장 김기현 △농식품유통교육원 교육운영부장 이영철 △농식품유통교육원 유통연구소장 조창익 △화훼사업센터 화훼기획부장 손용규 △감사부장 김상백 △인천지역본부장 권오훈

교육기획과장 박미영 ◇과장급 승진 △상표심사3과장 임기훈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동원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내한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지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연구장비개발본부 국산장비신뢰성평가센터장 박찬수 △환경·소재분석본부 지구환경연구부장 최정현

◆케이프투자증권 △신규 선임 △법인영업팀장 이인현

## 부음

▲오연자씨 별세, 이매경(기업은행 경동·강원지역본부장)·동원(공군 준장)·종원(서강대학교 노조위원장)씨 모친상, 류금숙·최선화씨 시모상, 천상희(머니투데이 편집위원)씨 장모상=1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8일 낮 12시, 02-3410-6917

▲양정연씨 별세, 김창영(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씨 모친상, 김혜승(따뜻한손 출판사 대표)씨 시모상, 김정민(전경련 선임연구원)·선필(IBK기업은행 과장)씨 조모상=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2-2072-2027



우리銀, 캄보디아서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

우리은행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14일까지 6박 7일간 캄보디아에서 '2018년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단은 캄보디아 프놈펜과 씨엠립 지역 명소를 찾아 역사·문화·생태를 탐방했으며, 지난 6월 우리은행이 인수한 WB파이낸스 견학을 통해 캄보디아와 아시아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은행



롯데홈쇼핑, 2018고객평가단 발대식 진행

롯데홈쇼핑은 지난 14일 서울 양평동 본사에서 고객들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2018 고객평가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올해는 기존 설문조사 등의 온라인 중심 고객평가단에서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확대해 '고객 모니터링 평가단' 1기를 출범한다. 이들은 방송, 주문, 배송, 사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의견을 제안하게 된다. /롯데홈쇼핑



샘표, 우리맛 연구 멘티 모집

샘표가 우리맛 연구를 함께 할 멘티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샘표는 획일화돼 가는 현대의 식생활 속에서 우리맛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우리맛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샘표 우리맛 연구 멘티'는 요리 테스트, 연구기획 등 두 개 분야에서 5명을 선발하며, 지원은 경력, 학력 상관없이 우리맛 연구 및 우리 식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 입사지원서는 오는 22일까지 샘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샘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2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25호